

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2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뉴스광장	00 튠튼생활제조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20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15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튠튼생활제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2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바른말 고운말	15 사랑의 가족 45 수목 드라마 (조선 총잡이)(재)	0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0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 12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특별기획 (마마)(재)	00 SBS12뉴스 30 닥터 365 35 영상기획 한국의 명소
30 뉴스 특급	00 2014 세계 주니어 사이클 선수권 대회		30 MBC 스포츠 전국 에어로빅 한마음 축제	00 건강클리닉
40 직인직설	20 TV책읽어 보자(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SBS 뉴스 10 토크쇼트 화통
55 정오판의 시사쟁법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견어바린 숲(재) 25 주유링 동물탐정(재) 55 TV 유치원 콩다공	00 MBC 경제 뉴스 10 옹가 쇼스타 40 헬로키키 틀루랄라 공룡여행	10 방학특집 음악여행 명곡의 고향
55 박종진의 레도넨마	00 시사잔담 55 튠튼 생활제조(재)	25 마법 천자문 55 위기탈출 넘버원(재)	30 퓌? 퓌! 키즈쿨	00 베이클론즈 30 우리끼리 탐구생활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세상은 넓다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질문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7 30 좋은나라 운동본부	50 일일드라마 (빠꾸기 등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때때때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20 관찰 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 연예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특집 애플바 바이러스 50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00 수목드라마 (조선 총잡이)	00 수목미니시리즈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00 드라마 스페셜 (랜달의 사랑이야)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30 KBS 뉴라인	10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도시의 법칙
10 라이브매치 압도적(재) ①:20 백일섭의 그때 그사람	3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크 (지구 온난화와 인류의 미래)	35 MBC 뉴스 24 55 스포츠 다이아리 ①:10 함께사는 세상 희망 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5 나이트 라인 ①:05 SBS 컬처클럽



# “비밀 결혼생활 외로움이 컸죠”

이지아, SBS ‘힐링캠프’ 출연 ... 담담한 회상

“은 국민이 아는 분과 함께 숨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수준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내도 많이 했고 포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은 산에서 내려온 다람쥐한테조차도 들켜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더이상 혼자일 수 없어 혼자였습니다. 정상적이지만 삶을 산 것은 그분이 그리웠을 때입니다. 무모할 만큼 순수하고 무지했습니다. 그게 사랑을 지키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지난 2011년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42)와의 비밀 결혼과 이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줬던 배우 이지아(35·사진)가 3년 만에 그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을 열었다. 이지아는 11일 밤 방송된 SBS TV ‘힐링캠프’에 출연해 서태지와 만남에서부터 비밀 결혼생활, 배우 정우성과의 열애 등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그러나 “여러 사람이 관계된 일이라 다는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해달라”는 말로 이야기 중간중간 말을 끊었고 직접적인 단어 대신 우회적인 표현을 쓰며 과거를 돌아봤다. 또 방송 내내 서태지를 ‘그분’이라 칭했다.

이지아는 “16세의 나이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위문공연에 온 그분을 우연히 만났고 얼마 후 큰 비밀(결혼)을 안게 됐다. 친구는 물론 가족에게도 얘기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님께 정말 큰 불효를 저질렀다.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됐기에 7년간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았다. 7년 후에야 부모님을 찾아보았다.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됐다”며 “돌아온 저를 부모님은 그저 빈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셨다. 내 남동생은 누나가 외계인에게 납치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앞서 서태지는 2011년 4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1993년 미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이지아)을 처음 만났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편지와 전화로 연락하며 호감을 갖게 됐고 1996년 은퇴 후 미국 생활을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지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아와 1997년 10월 미국에서 돌만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 생활을 시작했으나 성격과 미래상이

달라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했고 2006년 8월 부부 관계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공공 승계했던 둘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이지아가 2011년 1월19일 서태지에 대해 한국 법원에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지아는 한국에 돌아오기 전 미국에서 우연히 만난 한 국내 중견 여배우 덕에 연예계에 데뷔한 시연과 함께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도 개인사를 감춰야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 희식 자리들을 모두 피해야했다고 말했다.

이지아는 2007년 ‘태왕사신기’로 혜성같이 데뷔한 후 곧이어 ‘베트벤 바이러스’와 ‘스타일’에 주인공으로 전격 발탁되며 주가를 높였다.

그는 “본명은 김상은이고 김지아로 개명했다. 이지아는 예명”이라며 “나이는 ‘세번 결혼한 여자’에 함께 출연했던 송창의 씨와 똑같다”라고 말했다. 송창의는 1979년생이다.

이지아는 정우성과 파רי 여행 중인 사진이 찍히며 정우성과의 열애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곧이어 서태지와 관계가 드러났고 둘은 얼마 후 결별했다.

이지아는 “파리 여행에서 정우성 씨에게 고민 끝에 과거를 고백했는데, 자신도 15년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다면서 그게 뭐 어쩌냐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줬다”면서 “사실 그 일이 터지고도 그분과 잘 만나고 있었는데 결별설이 터지더라. 얼마 후 정말 헤어졌는데 그때는 다시 만나고 있다는 설이 나오더라”고 말했다.

그는 정우성에 대해 “너무 좋은 분이고 건승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아는 “이제는 희식도 다 참ச்ச하고 사람들과 많이 어울린다. 내가 술을 이렇게 잘 마시는 줄 몰랐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 내가 이 좋은 것을 그동안 못하고 살았다는 게 억울하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선택(서태지와 결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BS

05:00 World News Review	10:30 미술탐험대	14:45 곤	19:0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재)
05:40 엄마없이 살아보기(재)	10:35 아기 고릴라 동동	15:00 지구를 지켜라	19:30 EBS 뉴스
06:10 세계의 눈 <자연>(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5:15 마사와 곰	19:50 다문화 고부열전
07:00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잠자기 반도>(재)	15:30 꼬마겨북 프랑클린	20:40 다큐 오늘
0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12:00 EBS 정오 뉴스	15:50 바두와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페루>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초대석	16:00 엉뚱망 유지원(재)	21:30 한국기행
07:45 로보카 폴리(재)	13:05 지식채널e	16:20 우당탕탕 아이쿠 <순례길 풍경>	
08:00 당동명 유치원	13:10 초등2년 EBS 여름방학	16:30 핵잡이 오정 또보 <문명사 추적>	21:50 EBS 다큐 프라임
08:20 짝과 광(재)	13:30 초등3년 EBS 여름방학	16:45 Why-최고다! 호기심딱지(재)	수학대기획 생명의 디자인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50 초등4년 EBS 여름방학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2:45 극한직업 <야생 도라지 채취>
08:50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13:50 초등5년 EBS 여름방학	17:15 꼬마버스 타요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9:05 핵잡이 오정 또보(재)	14:10 와글와글 친구들	17:45 두디다쿵	24:05 지식채널e(재)
09:20 특집 생방송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개막	14:20 풀밭! 페피는 즐거워	18:00 생방송 퓌! 퓌! 보니하니	24:10 수요극장 <사라진 총>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I>	12:10 5분 과탐·생명과학 I <국어 I>
01:40 " <국어 II>	12:15 수능 완성 <수학 I B형>
01:40 " <영어독해의 기본 II>	13:05 " <미적분과 통계 기본>
02:30 " <수학 II>	14:00 " <국어 B형>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I>	14:50 " <영어 ①>
04:10 " <과학>	15:40 " <영어 ②>
05:00 " <한국사(하)>(재)	16:30 " <한국지리 I>
05:50 2013 포스 <수학 II>	17:20 " <사회문화>
06:40 압축탐스런 <생명과학 I>	18:10 " <경제>
07:30 2014 포스 <문학 II>	19:00 " <윤리와 사상>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I>(재)	19:50 5분 과탐·생명과학 I (재)
09:10 " <수학 II>(재)	20:00 EBS-N <국어 B형>(재)
10:00 뉴 탐스런 <과학>	21:00 " <수학 B형>(재)
10:50 2013 포스 <수학 II>(재)	22:00 인터넷 수능 <문학 A형>
11:40 박복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23:00 " <영어독해연습 ①-종합편>

EBS플러스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6:00 초등3년 EBS어름방학생활
07:30 친절한 수학 익힘책 I (6-1)	16:20 초등4년 EBS어름방학생활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6:40 초등5년 EBS어름방학생활
08:30 전기기사/산업기사 시험대비 강좌	17:00 초등6년 EBS어름방학생활
09:10 TV 중학 <국어 ①②>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국어 ①>
09:50 " <수학(하)>	18:00 TV 중학 <전과목 6-1>
10:30 " <도덕>	18:20 TV 중학 <영어3-2>
11:10 " <국어 ③④>	18:40 " <수학3-2>
11:50 " <수학2(하)>	19:20 15일의 기적 <과학(1)>
12:30 15일의 기적 <국어(1)(2)>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국어>
13:10 " <영어(1)>	20:40 " <영어>
13:50 " <수학(1)>	21:20 " <과학>
14:30 " <사회(1)>	22:00 등업신곡 <역사해(2)>
15:20 초등1년 EBS어름방학생활	22:40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중급)
15:40 초등2년 EBS어름방학생활	23:20 중학 e포스 영문본 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3일(음 7월 18일 丙辰)

**子** 36년생 신중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48년생 여자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다. 60년생 관계나 체면을 의식한다면 걸림돌이 된다. 72년생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자. 84년생 절차대로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6, 71

**丑** 37년생 성과가 미진했다. 49년생 행운을 이끄는 길성이 비추고 있다. 61년생 공명정대한 자세로 당당하게 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73년생 소신껏 처리하는 것이 무난하다. 85년생 합리적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3, 96

**寅** 38년생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50년생 서막에 이르자마자 가다가 잡히라. 62년생 목적이 부합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74년생 만화극에 좋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 28, 63

**卯** 39년생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으니 어림잡아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 51년생 관계의 개선이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다. 63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 되리라. 75년생 상대의 충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행운의 숫자 : 45, 24

**辰** 40년생 오매불망하며 기다려 왔던 바에 보람이 있을 것이다. 52년생 기존의 형태가 끝없이 반복되는 상황일 뿐이다. 64년생 시적이 반이 될 것이니 과감한 실행을 요한다. 76년생 세밀히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92, 05

**巳** 41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53년생 액면 그대로 인식해야만 명징한 관점을 확보한다. 65년생 결정적인 순간이니 주먹하고 있어야겠다. 77년생 상대 역시 기본적인 입장은 마찬가지이다. 행운의 숫자 : 26, 54

**午** 42년생 본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차질을 빚지 않는다. 54년생의 육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겠다. 66년생 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오는 것을 막으려 마라. 78년생 예견된다면 당연히 피하고 봐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8, 81

**未** 43년생 한 번 벨은 말은 주위 담을 수 없음을 알자. 55년생 지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67년생 폭염 속에서 폭우가 쏟아짐에 비유할 만하다. 79년생 인정받거나 이루어지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70, 84

**申** 44년생 장소를 함께 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따로따로이다. 56년생 세분화 할수록 이롭다. 68년생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꼭 필요하다. 80년생 일련의 정황을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78, 09

**酉** 45년생 부정적인 요소가 생기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면 그만이다. 57년생 내색할 단계가 아니다. 69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틀림없겠다. 81년생 외관이 비슷하다고 해서 내용까지 일치한다고 보면 오산이다. 행운의 숫자 : 85, 33

**戌** 46년생 행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58년생 오해 받을 수도 있느니라. 70년생 시간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82년생 순조로움을 더 하고 있으니 가속도를 낼 때다. 행운의 숫자 : 20, 42

**亥** 47년생 조용히 추진함이 안정성에 일조할 것이다. 59년생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완성도의 차원이다. 71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니라. 83년생 천군만마를 염용과 같이 배속하라. 행운의 숫자 : 51, 6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 “시크릿 만의 섹시한 매력에 빠져 보세요”

8개월 만의 컴백, ‘시크릿 서머’ 발매

“20대 중반, 우리 나이에 맞는 섹시미를 보여주려고 고민했어요.”

4인조 걸그룹 시크릿(전효성 25, 한선화·송지은·정하나 24·사진)이 11일 강남구 역삼동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다섯 번째 미니앨범 ‘시크릿 서머’ 발매 기자회견회에서 신곡 콘셉트를 이렇게 소개했다.

전효성은 “20대 초반의 사랑은 풋풋하고 순수한 느낌인데 20대 중반은 슬프고 아파도 인생을 다 걸 정도로 깊게 사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마돈나’ 등 이전 곡에선 파워풀한 안무와 인위적인 표정으로 섹시함을 표현했다면 지금은 섹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표정과 제스처에서 나이에 맞는 성숙미가 묻어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타이틀곡 ‘아이 인 러브’(I'm in love)의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은 안무와 표정, 의상으로 각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섹시미를 발산했다. 이 곡은 이단연작기가 작사·작곡한 곡으로 그루브(흥) 강한 댄스곡이다.

송지은은 “시크릿다운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브라스 사운드 특이한 노래”라며 “사랑을 수줍게 고백하는 여성이 아니라 사랑하며 느끼는 감정을 남자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여성을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정하나도 “이전 앨범에선 귀엽고 여성스러운 모습이 가득했다면 이번에는 노래도 안무도 자극적이지 않고 우리 나이에 맞는 섹시미를 보여주기 위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앨범 발매와 함께 공연을 한 한선화와 전효성은 연기와 솔로 앨범 활동이 내공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선화는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더 섬세한 감정 연기를 할 수 있었고 가사도 흘러버리지 않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전효성은 “솔로 활동 때는 3분의 무대를 혼자 채웠는

데 완전체로 모이니 라이브와 녹음이 수월해 여유가 생기더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싱글 음반에 이어 8개월 만의 컴백인 만큼 멤버들의 각오도 대단했다.

전효성은 “이번 앨범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준비했다”며 “시크릿은 데뷔 초부터 목표가 국민 걸그룹이다. 1위 횟수도 중요하지만 1위하고 금방 잊히는 노래보다 많은 분에게 불리고 들리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기수는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1위 공약을 주문하자 멤버들의 파트와 의상을 바꿔 입고 노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는 걸그룹과 다른 자신들의 감정을 묻자 이렇게 외쳤다.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구두 신고 격한 퍼포먼스를 하는 몇 안 되는 그룹 중 하나라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린 파워풀한 댄스를 추면서 시원한 라이브를 소화하고 건강미가 있는 게 강점이지요.” /연합뉴스



# 광주MBC 탐사기획보도

##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광주MBC 탐사기획보도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취, 이대로 좋은가’가 제41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지역뉴스보도-TV 부문)을 수상한다.

광주MBC 김철원, 김인정, 송정근 기자가 지난해 9월 7차에 걸쳐 연속 보도한 이 기획보도는 경찰과 검찰이 업무 목적 외에 개인의 전과기록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들여다보고 이를 유통하는 실태를 폭로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이 개인정보 무단조취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밝히지 않자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을 통해 끝까지 추적, 권력기관의 이중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보도 이후 시민들에게 ‘정보 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줬다는 평을 받았다.

시상식은 ‘방송의 날’인 9월3일 열린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